이베로아메리카 제3집(2001년)

브라질 문학에 나타난 食人風習 (食人主義 : Antropofagismo)의 전통

이 광 윤*

Ⅰ. 序 論

인류가 생겨나서 문명이 발생하고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형성된 가장 본질적 금기라고 하면 바로 근친상간과 '식인'이라 할 것이다. 그중 식인풍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식인종을 생각하나 이는 식인풍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단편적 오해에서 비롯된다.

전설적인 왕조인 하나라를 배경으로 '복수주의'[1]에 의한 최초의 식인이야기가 존재하며 또한 4천년 역사에 식인문화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서처럼 식인풍습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있어오기도 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있었던 식인풍습은 일반적으로 미개사회에서 행하여졌다. 특히 남미의 원주민들은 오랜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지역의 여러 원주민 종족들이 행한 식인풍습은 몇 가

*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부교수.

1) 유교는 '복수주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장려한 면이 있어 복수에 의한 식인행위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부모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생각으로 심하면 부친의 원수를 29대까지 갚기도 하였으며, 복수할 때는 한 칼에 숨통을 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 갈래, 만 갈래로 잘랐으며 때로는 고기를 잘라먹고 심장과 간을 꺼내어 씹어먹으며 갈아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예로, 측천무후 당시 잔혹한 고문과 형벌로 유명했던 내준신이 처형되었을 때는 군중들(그들에게 처형당한 이들의 가족)이 다투어 그의 고기를 잘라먹었다고 한다.

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

식인(食人)이라는 주제는 '다른 사람들'의 사악함을 정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을 때가 많다. 문화라는 것은 음식 목록에서 인육을 빼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물론 서로를 잡아먹지 않았으므로, 지성이 없는 야만인들을 문명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되었다. 예를 들어 중부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교회의 식민화를 거부한 것은 이들이 식인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되었을 때가 많다. 벌거벗음, 근친상간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사악하며 죄짓는 섹스를 덤으로 끼워 넣을 때도 많았다.

미학적 또는 문학적 경향으로서의 '식인풍습'(식인주의, 식인문화 *Antropofagia* 또는 *Antropofagismo*)이라는 용어는 브라질문학사에서

---

2) 식인풍습의 유형은 첫째로, 장례의 일부로서의 식인이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인간적이다. 오리노코 강 상류의 촌락에 사는 구이아카족들의 매장 식인풍습이 그 좋은 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남은 뼈를 조심스럽게 모아 절구에 넣고 간다. 장례식이 거행될 때 친척들은 이 가루를 국과 섞어서 서로 나누고 마신다. 슬프게 한탄하면서. 종족에 따라 죽은 사람의 신체 일부만 태워서 먹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재나 뼈를 먹는 것은 화장의 연장이었고, 일종의 제의였다. 둘째로, 인신공희(人身供犧) 의식으로서의 식인풍습이 있다. 이는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지금부터 200~300년 전만 해도 멕시코의 아즈텍 왕국에서는 전쟁 포로나 자국의 청년 남녀를 제단에 올려서 묶은 다음 희생자의 가슴을 열어 젖히고 심장을 끄집어내었다. 캐나다의 휴런족에게도 포로를 밤새 괴롭힌 후 태양이 떠오르면 죽이는 희생의식이 있었는데 이는 전쟁과 태양의 신을 기쁘게 해 주려는 용도였다. 의식이 끝나면 죽은 포로의 몸을 놓고 인육잔치가 벌어진다. 셋째로, 적개심의 고취와 적의 세력 약화를 위한 식인이었다.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식인종'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이다. 이런 경우, 흔히 포로들은 죽기 전에 극심한 고문을 당하기 마련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죽인 포로의 시체를 먹음으로써 적에 대해 증오를 표출하고, 자기 부족에게는 '식량'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두 번째와 비슷한 인신공희 성격이 가미되기도 한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식인은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기아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이성이 마비되면 언제든 식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일부 문화인류학자들은 우리가 일컫는 '야만인'들의 식인 풍습을 야만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부족한 식량 또는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필요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세계의 식인문화", 『월간지구촌』, 2000년 5월호 참조.

1928년 브라질 모더니즘의 기수였던 오스발두 지 앙드라지 *Oswald de Andrade*에 의해 처음 등장하였지만, 문화적 또는 미학적 태도로서의 그것은 브라질의 문화적-정치적 면모의 굴곡 많은 주변적 상황을 구성하기까지 점차적으로 변증법화 되고 있는 식민지배자의 문화에 의해 억압되어온 토착적 의도의 접합점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곧 모든 자유(또는 해방)주의적 표현에 내재하고 있는 미학적 토론이 새로운 관점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도로 보여 지며 모더니즘 운동을 통한 브라질 문화의 뿌리 찾기가 '식인풍습'이라는 용어를 통해 보다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브라질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식인풍습에 관한 담론을 브라질 문학의 정체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브라질 문학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접근 시각으로는 '정체성 탐구의 도구로서의 브라질 문학의 식인풍습 또는 식인주의에 대한 고찰'이라는 견지에서 정체성의 추구라는 끈질긴 자기 확인 노력이 브라질의 역사와 사회에서 특별히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키고자한다.

Ⅱ. '食人風習'으로 풀어본 브라질 문학

'식인풍습'(Antropofagia; 또는 식인주의 Antropofagismo)이란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혼합과 융화를 거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선언적 개념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카니발리즘' *Cannibalism*, 즉 사람의 육신을 먹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풍습에서 유래된 식인주의(食人主義)를 도입하고 있다. 즉 브라질에 있어서 식인풍습은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브라질 문화의 원천을 찾기 위해 결정된 선언적 개념이며,

여러 인종이 혼합되어 구성된 사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지향성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개념은 1928년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의 '식인주의 문학론'에서 유래하고 있다. 즉 그는 낭만주의의 유토피아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빈부차이가 극명한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 요소들 - 즉 인종, 풍요로운 자연, 천연자원, 음식, 춤 등 -을 시(詩)라는 백지공간에 투사하여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요소들이 브라질적 언어로 구성된 시의 역동적 구조 속에서 서로 동화하고 융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즉 그러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Identidade* 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3)]

1. '食人風習'의 담론과 그 해석

모더니즘 시대 이후로 브라질 문화와 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식인풍습'은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지적 정체성의 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문학적 비평에서 여전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모더니스트의 유럽중심주의와 유럽의 데카당학파가 도입했던 원시적 요소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퍼시픽 문화를 이국적 풍물화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되었다. 바로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는 외국인에 대한 그리고 외국의 이질적인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변신을 위한 합성화를 강조하면서 곧 유럽문화의 테크닉과 아이디어를 통째로 먹어 삼키자는 식인풍습을 제안하게 되었다. 즉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를 비롯한 식인주의 운동자들은 유럽인들에 대한 식인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뚜삐남바 *Tupinamba*족 인디오의 편을 들어 소위, 유럽의

3) Oswald de Andrade, "Manifesto da Poesia Pau-Brasil", In; *Do Pau-Brasil à Antropofagia e às Utopias,* Obras Completas de Oswald de Andrade,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1970, p.5.

낭만주의자들이 일컫는 '문명에 때묻지 않는 인디오'이라는 용어를 경멸하고 지성인들에게 '당신은 식인종인가 아니면 유럽 혹은 미국의 지배하에서의 문화적 소외자인가?'를 외치며 *'Tupi or not tupi, that is the question!'*이라는 상징적인 슬로건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각 나라의 유산과 라틴아메리카의 유산은 식민주의자와 제국주의자라는 틀 속에서 특히, 해외정부로부터 조종된 군사적 독재정권하에서의 혹독한 탄압과 폭력, 그리고 해외의 대중적 미디아들의 상업주의적으로 의도된 정치와 문화에 대한 편견과 왜곡 등이 서로 혼합되어 역동되어 온 것만은 사실이다. 후식민주의적 문화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는 인종과 성, 계급 그리고 권력이 적용된 '타자'(Other)의 복잡한 매커니즘에 대한 비판적인 탐구를 의미하며, 이론적으로는 모더니즘, 모더니티, 아방가르드의 삼위일체적인 개념을 깨트린 재해석의 시도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판적 자세는 식민시대의 명령지시 삼권부인 정부와 교회 그리고 군대에 대해 냉소적이고 불신의 확장을 초래하게 된다.

20세기의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은 그들의 영역 내에서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데 있어서 엄청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적 무대에서의 활동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복종이 강요될 때 표현의 자유란 그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본성으로 파괴성의 의미를 수반하여 어떠한 독재정권도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려는 이들을 참지 못해 파괴의 첫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타자'문화가 이국적이며 원시적인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체계를 서서히 서구식 가치체계로 흡수해가는 '전이'의 과정 속에서 라틴 아메리카라는 장소적 특이성은 그 공간 속에서 유발되는 역동적 에너지를 거르게 되며 이러한 힘은 자신에 대한 재평가와 가치에 대한 검증의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은 '세계적 시각'이라는 유럽의 식민지적 서구적 관점에서 탈피하려는 '세계적 시각'을 라틴 아메리카 곧 브라질인들에게 '식인풍습'이라는 새로운 담론으로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식인풍습은 브라질이라는 지역 범주를 넘어 국제적인 문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밀도와 융화를 강조하려는 문화적 식인주의가 다양한 주변 문화의 융화된 형태를 지향함으로, 서구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문화 구조가 와해되는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 기준 가치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문학의 관점에서 식인풍습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첫째는 특히 바로크시대의 그레고리우 지 마뚜스 *Gregório de Matos*의 경우에 두드러지는 식민지시대의 문학에서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도록 면면하게 표현되고 있는 브라질 문화의 에토스 *ethos*로서 식인풍습을 초점 지우는 것이고, 둘째는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의 문학에서 표현되어 특히 '식인주의 선언' *Manifesto Antropófago* 에서처럼 그의 문학적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의 수필적 평론에서 자신의 중요한 문학적 테마가 된 극히 비평적이며 논쟁적인 모더니즘의 문화의 발산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서는 브라질 문화가 두 개의 힘의 선, '상식과 기호의 선' *linha do bom senso e do bom gosto*라 불리게 되는 유럽식민화의 영향에서 비롯된 유태-기독교적 전형과 '웃음 그러나 진지함의 결여의 선' *linha do muito riso e pouco siso*이라 불리게 되는 카니발적 전형이라는 두개의 선이 상호 교류하는 변증법적인 구조화에 의해 특징 지워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상식과 기호의 선'은 특히 점진적이며 합리적인 모델로 특징 지워지며 문학적으로 사실주의적인 범주의 고전적인 문체로 표현된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논쟁적인 문체로 표현되는 두 번째 '웃음 그러나 진지함의 결여의 선'은 권력을 폐위시키는 개방적이며 맹렬한 웃음의 분출을 통하여 지배문화에 대한 비평으로 특징 지워진다.

후자의 경우에서는 식민지배자의 문화에 의해 남겨진 흔적들을 문제삼기 위하여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가 이상화하였던 '포르투갈계 브라질

의 모주제(여성가장제, 母主制)'의 무정부주의-유토피아적인 의미를 특히 지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식인풍습의 해석은 명백하게도, 브라질 문화와 문학에 있어서 식인주의적이며 카니발적 줄기의 출현이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 작품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상호 보충하기도 하며 그리고 상호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은 브라질 문화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의 토대 위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경계에 대해 합치를 이루는 특정한 이론적인 담론[4]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브라질 모더니즘의 초기 단계를 특징지우는 미학적-문화적인 운동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 브라질 문학에 있어서의 食人風習의 유형

브라질문학의 역사적 노정은 전체 발전의 과정 속에서 항상 형식과 주제 그리고 모델의 이식(移植)에서 표현된 문화적 종속이라는 지배로부터 유래된 모든 문화의 오점을 기록하고 있다. 식민화 *colonização* 는 이러한 의존이 형식의 지배로부터 자신의 입장으로 전이될 때 더욱 심각해진다. 즉, 단순하게 모델을 재생산하는 것 대신에 태도가 재생산된다. 이러한 태도가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지배자에 의해 언급되어지는 경우 그 결과는 단순히 민족으로서의 국민의 완전한 형체변형이다. 브라질문학은 바로 이러한 경우의 노정을 거치고 있다.

초기단계에 있어 브라질은 유럽문명의 차원에서 파생된 포르투갈적 체계의 형식화와 위치화의 과정에 얽매여 있었다.[5] 초기 브라질의 문학

---

4) 특히 다음의 책을 참조할 수 있음.
Merquior, José Guilherme, *Saudades do carnaval,* Rio de Janeiro, Forense, 1972, p.283과 Neves, Luiz Felipe Baêta, "A ideologia da seriedade e o paradoxo do coringa". In *Revista de Cultura Vozes,* 1:35-40, Petrópolis, Vozes, Jan-fev, 1974.

5) Silva, Anazildo V. da., *A Formação Épica da Literatura Brasileira,* Rio de

적 실현은 까몽이스의 대작 우즈 루지아다스 *Os Lusíadas*의 모방이었던 벤뚜 떼이쉐이라 *Bento Teixeira*의 쁘로소뽀뻬이아 *Prosopopéia*였으며, 당시 브라질의 첫 번째 태도요 입장은 포르투갈적 우월함의 정당성에 얽매여 있었다.

그러한 사실들의 브라질화로의 반향은, 민족주의적 분위기로의 기계적이며 약속된 순응이 아닌 지배의 근원에 뿌리박은 전술의 전용 - 그래서 그 지배를 극복하고 투쟁하려는 힘을 갖추게 된 - 으로의 유럽적 텍스트의 탐식이라는 외래영향의 삼키기(탐식)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현실이 브라질에서의 문명의 시작이요, 또한 브라질의 문화적 노정을 특성 없게 만드는 오욕으로서 역사를 넘어서는 것이었다면 브라질 문화는 20세기초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의 '식인주의 선언' *Manifesto Antropófago*에서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물론 그레고리우 지 마뚜스 *Gregório de Matos*의 순수한 브라질식 목소리를 통하여 식민시대에 이미 종속의 의식에 의해 결정화된 비평이 나타났었으며 이때부터 민족주의적 의식은 초기의 이식을 제거하려는 의미에서, 그리고 브라질문학의 독창적 문학적 의도의 성격을 결정짓기 위한 의미에서 문학사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문학과 식인풍습의 관계규명을 위하여 식민지배자의 탐식의 의미에서 피지배자의 식인풍습적 제스처를 이론적·비평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앞서 브라질 문학에 적용하는 식인풍습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 점에서 요약하고자 하였다. 그 첫째가 '브라질문화의 에토스'[6] 요, 두 번째는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의 문학에서 정착된 문화의 분수령'이 바로 그 것이다.

Janeiro, Elo, 1987, p.47.

6) 여기서 에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한 문화의 본질적인 정신적 특색, 기풍, 관습, 민족정신내지는 예술작품의 기풍, 윤리성, 또는 성격(character)이나 기질(disposition)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그레고리우 지 마뚜스의 경우에 고전적 모델과 약속된 '엄숙함의 이데올로기'와 유럽모델에 의해 정치적, 미학적으로 식민화되고 억압받아온 문화의 비속한 진수를 상처입힘으로써 나타나는 '반-이데올로기적 선'이 그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그는 식민지배자를 희생하고 문화적 살육이 자행되는 식인풍습적 카니발화의 축제를 개막하게 된다. 이의 상징적 의식의 도구가 바로 그가 즐겨 사용한 신랄한 풍자인 것이다.

또한 마리우 지 앙드라지 *Mário de Andrade*와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의 경우에는 식민지배자의 위치에서 탐식의 과정의 획기적인 시점의 연구가 돋보이는데 오스발드의 경우에 식인풍습의 충격이 의식적으로 확립된 시도(프로젝트)에 대한 반향이라면, 마리우의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의 국면에 대해 한정되어있다. 이들에 따르면 식인풍습은 브라질의 문화를 순수하게 브라질화하려는 의도에서 하나의 전체로서 모더니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22년 세대'의 모더니즘은 충격의 시간에 문학적이든 이론적이든 생산을 가능하게 한 목적에 대해 필수불가결한 공격으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즉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본이념으로 브라질의 지성을 활발히 움직였으며, 동시에 고답적이며 낭만적인 형식화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지평 *perspectivas*을 개막하고, 외래로부터 수입된 담론에서 유산 받은 규범을 파기함을 통하여 브라질의 문학적 언어를 위해 투쟁하고, 문학과 원래의 초상적 예술간의 상호교류에 의해 야기되는 시적 텍스트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으며, 더 이상 단선적이 아닌 또 다른 말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화적인 언어와 미래주의에 의해 재개된 상징주의적인 제안을 앞서 진행하는 권리와, 마지막으로 시학의 이론이 현재와 예술 그리고 인간과 약속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예술적 생산물 속에서 함축되어 있다는 인식을 일깨워주고 있다.

3. 아방가르드와 파괴

브라질 모더니즘 운동에 대한 후일의 연구에서[7] 마리우 지 앙드라지는 모더니즘운동의 파괴적 특징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당시 모더니즘운동을 주도한 젊은 지식인 예술가들을 이끌었던 미학적이며 문화적인 면모의 부정적인 지적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우리는 한편으로 마리우 지 앙드라지가 말하고 싶어 했던 것, 즉 모더니즘 운동의 우상 파괴적 힘이 종종 근본적인 것보다도 부차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모더니즘운동이 그 진원지였던 싸웅 빠울루 *São Paulo*의 지적 분위기에 의한 방탕함속에서 용해되어버렸다는데 동의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마리우 지 앙드라지는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하였다. 그는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의 '식인주의 선언'에서 종국적인 결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파괴적인 특징에 의해 이입된 비평적 근간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마리우 지 앙드라지로 하여금 모더니즘의 파괴성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에게 있어 모더니즘이 대중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그것은 귀족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어쨋든, 포지올리 *R. Poggioli* 가 말한 바와 같은 논리에 따르자면 아방가르드의 출현은 두 개의 평행적인 문화의 충격과 부르조아 사회의 초기 단계의 주동적 계급 -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인 커피 지배계층과 산업화 단계의 진보적 과정과 연관시킬 수 있다 - 의 몰락과 관련이 있다.[8] 고 볼 때, 이미 '설정된' 문화와 아방가르드적 진보적 태도간의 충격에서, 아방가르드는 '부정(否定)의 문화'와 '예외의 예술'로서 드러나게 되며, 예술가는 지배계급의 인텔리겐쨔에 대항하는 파괴적 선언을 시위하

---

7) Andrade, Mário, "O Movimento Modernista",. In: - *Aspectos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Martins, s.d., p.231-255.

8) Poggioli, Renato, *The Theory of Avant-garde,* New York, Icon, 1962, p.108.

고자 한다. 이렇듯 아방가르드의 파괴적 특징은, 세계를 개혁하는데 목마른 지식인 청년들의 소란한 집단의 파괴적이고 개인적인 의도(의향)에 대해서보다도 (브라질의 경계를 넘어서) 어떤 세계적인 맥락에서 역사적인 충동에 더 기인하는 것이다.

이의 증거는 곧 파괴적인 열망이 1922년의 '현대예술주간'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직 젊은 외침만으로 표면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와 마리우 지 앙드라지의 많은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파괴적인 힘의 원동력(다시 말해 식인풍습, 식인주의 운동)이라는 측면으로 결정화되는 것이다.[9]

Ⅲ. '食人風習'과 브라질 문학의 正體性 認識

브라질 모더니즘운동의 분수령이었던 현대예술주간 *Semana de Arte Moderna*이 낭만주의와는 달리 본격적인 브라질의 문화적인 정체성의 확립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국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이를 출발점으로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구현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자국 언어에 대한 분석과 이해, 그리고 그 결과를 문학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한 나라의 언어는 곧 그 나라의 역사요 문화가 숨쉬고 있는 보금자리이자 그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브라질의 모더니즘이 자국의 언어와 자국에게 합당한 문화적 패턴에 근거하여 자국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은 첫째, 해묵은 서구 유럽 지향적인 과거 패턴과의 단절과 둘째, 자국 사회의 다양한 민족 구성, 셋째, 풍부한 문화적 요소와 자연 유산, 그리고 넷째, 자국 원주민 인디오들의 야만적인 풍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9) Andrade, Mário, Op.cit., p.257.

식민지 종주국의 혐오와 두려움 그리고 교화의 대상이기도 했던 인디오들의 식인풍습이었다. 이와 함께 말라르메를 비롯한 서구 자각들이 주장하였듯이 문학 특히 시(詩)는 언어의 예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려 브라질 모더니즘 작가들의 인식을 새롭게 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시적 언어에 대한 이 같은 인식과 경향은 1930년대부터 50년대 사이 브라질 문학의 중요한 경향을 이루었던 '북동부 향토주의' *Regionalismo Nordeste* 와 브라질 문학사에서 후기모더니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의 '구체주의 운동' *Concretismo*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된다.

1. 다양성과 표현기법

한나라의 사회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잇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회가 다양한 문화 역사, 언어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각기 이질적인 성격의 문화들이 어떤 특정한 지정학적 공간에서 오랜 공존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문화의 동화력과 친화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그 문화의 공간 확대와 더불어 개방화를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남미 전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으로 특히 브라질의 경우, 애초의 원주민 인디오와 사탕수수농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유입된 아프리카 흑인, 19세기와 20세기 초 활기를 띤 커피 산업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의 이민이 유입되어 인종의 다양성에 따른 문화적 양상 또한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 속에서 잉태된 이질적인 문화와의 친화력과 동화력은 브라질만이 지니는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었고(대표적인 예가 카니발) 그 독창적인 문화의 힘은 이질적인 문화를 획일적으로 동질화하는 것이 아닌 수평적이고, 개방적으로 동질화하는 잠재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인종과 혼합의 문화를 브라질 문화의 뿌리로 인식한 모더니즘은 그를 확인하고 구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유럽의

식민지 종주국의 문화적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국의 국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으며 그의 방법은 유럽의 기법을 따랐으나 보다 브라질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소재와 언어의 특질을 발굴, 구현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서구 유럽문화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나아가 그들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고자 자국문화의 완충성과 다양성을 고양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도는 과거에는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브라질의 독특한 문학사를 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새로운 인디아니즈무 *Indianismo*: '食人風習'

포르투갈에 대한 언어적·문화적 피식민 의식과 역사를 통해 온 정치적·경제적 식민통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브라질의 역사를 규정지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브라질에서 진정한 민족주의 문학의 시대가 개막되고 낭만주의라는 유럽의 신사고가 유입되기 시작한 18세기말부터 19세기 초, 브라질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진정한 가치 찾기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비평가인 주제 아데랄두 가스뗄류 *José Aderaldo Castello*는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낭만주의는, 그때까지 잠재 상태에 있던 인간의 열망을 반영하듯, 그들의 개인주의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수단이었다. 그 결과 낭만주의는 각국의 자연과 사회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과 민족적·역사적 가치들을 고양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테마에 몰두하였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의 여파를 심하게 겪고 있던 시기에 갓 태어난 신생 국가의 애국적 열망을 확산시키는데 있어서나 그들 자손들이 지녔던 민족주의의 열망을 고양하는데 있어서 낭만주의는 가장 유익한 매개체였던 것이다."[10]라고 주장한다.

---

10) Y., Fujiyama, *Históri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Àtica, 1975, p. 75.

이러한 민족주의적 낭만주의는, 진정한 브라질식 문학을 창조하고자 했던 문인들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그때까지 브라질 문학에 직·간접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던 포르투갈의 표현 양식에 반대, 브라질 국민이 쓰는 언어를 접목시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특수성을 공고히 해 나갔다. 비록 그와 같은 시도가 당시에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어도 그들의 의식과 시도는 20세기에 들어 자국민의 언어를 통한 진정한 민족 문학을 꽃피우고자 했던 여러 문예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브라질의 문학은 브라질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자 하고, 그 점을 말하고 싶어 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실천해 온 브라질인들의 노력이 문학작품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낭만주의 혁명은 역사·사회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예술과 문학의 차원에서도 브라질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자 했던 여러 시도들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 시대를 기점으로 그때까지 포르투갈에 종속되어 있던 브라질의 문화를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본격화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브라질의 낭만주의는 단순히 예술적, 문학적 차원의 혁신 운동이었기보다는 식민지 종주국인 포르투갈의 전통과 문화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한 구체적이고도 독창적인 문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전체를 관류하고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브라질 사회를 이끌었던 지배 이데올로기는 카톨릭 정신에 입각한 이상적인 민족국가, 즉 '브라질다운 브라질' *O Brasil brasileiro*의 건설을 위한 보편적 특징 *Característica Universal*의 이데올로기였다.[11] 19세기의 브라질문학은 포르투갈문학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11) 브라질 모더니즘 운동의 변화의식은 브라질의 고유한 현실에 대한 복합적인 개방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현대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현실의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으로서 사회모순을 공공연하게 폭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였다. 이러한 주체적이고도 인간적인 발전이 요구하는 민족적이고도 문화적인 삶의 확대와 상승을 유발하는 의미로 보편적 특징이라는 용어는 내적 세계관의 변화와 그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 반(反) 포르투갈 정서로 비롯되는 민족주의 열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며 애국심과 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낙관주의와 선명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서정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낭만주의시대의 주요 작가들, 즉 시(詩)부문의 곤살비스 지 마갈량이스 *Gonçalves de Magalhães*에서 시작하여 곤살비스 지아스 *Gonçalves Dias*, 알바리스 지 아제베두 *Álvares de Azevedo*, 까스뜨루 알비스 *Castro Álves* 그리고 소설가 주제 지 알렝까르 *José de Alencar*에 이르기까지 이들 작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탁월한 종교적 감성과 열렬한 애국심으로 무장하여 민족주의와 신(神) 그리고 자연을 찬미하며 한편으로는 바이런 *Lord Byron*풍의 운명론과 다른 한편으로는 빅토르 위고 *Victor Hugo*의 새로운 인간관과 서정성을 이상으로 삼아 박애정신을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였다.[12] 이들의 이러한 문학적 대응은 당시의 포르투갈 문화와 문학에 대한 비판 내지 저항의 표현임과 아울러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도피적인 표현의 양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낭만주의 시대에 있어서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은 흔히 광활한 이국적 자연을 무대로 한 원주민 인디오의 영웅적 일화나 전설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생활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대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재의 선정이 앞서 언급한 자국 언어를 통한 자국문화의 정체성 탐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1922년의 모더니즘이 구현해 온 가치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된다. 즉, 모더니즘 작가들은, 특히 그 리더였던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가 자신의 '식인주의 문학론'에

12) 특히 시(詩)의 부문에서 브라질 낭만주의는 크게 3단계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1단계는 민족주의와 신(神) 그리고 자연을 찬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제 2단계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 Lord Byron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가, 그리고 제 3단계는 박애주의 정신이 주된 테마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위적인 구분에도 불구하고 낭만주의 시기 내내, 알바리스 지 아제베두 등과 같이 유럽 양식에 심취한 몇몇 작가에게서조차도, 모티브와 언어 면에서 브라질의 혼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이광윤 외, 브라질 문학사, 부산,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1998년, pp. 85-102 참조.

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낭만주의의 유토피아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빈부차이가 극명한) 정확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면서 브라질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 요소들 - 인종, 풍요로운 자연, 천연자원, 음식과 춤 등 -을 시(詩)라는 백지 공간에 투사하여 서로 이질적인 성격의 요소들이 브라질의 언어로 구성된 역동적인 구조 속에서 서로 동화하고 융합토록 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즉 그러한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브라질 문화의 정체성 *Identidade*를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브라질문화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로 모더니즘이 인식하고 있는 브라질문화의 정체성이요, 구현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브라질 문화의 그와 같은 친화력과 동화력의 사상적 배경을 바로 원주민 인디오들의 식인 풍습에서 찾고 있다. 즉, 브라질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異)민족 포르투갈인들과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을 집어삼키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 모더니즘 작가들은 바로 이와 같은 풍습의 이면에서 타문화에 대한 브라질 문화의 흡수, 융합력을 간파, 이를 브라질문화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다.

Ⅳ. 結　論

'식인풍습'(*Antropofagia* 또는 식인주의 *Antropofagismo*)을 타자와의 경계 저편에 존재하는 문화현상으로 기술했던 최초의 유럽인들은 소위 식인왕국을 침범하여 그 경계를 무너뜨린 식민지 정복자들이었다. 이 서구의 정복자들은 신의 질서와 세계정의의 실현이라는 명분 하에 그들의 종족 살륙행위를 구원사업의 일부로 정당화했으며, 이때 그들은 저항하는 종족사회 구성원들을 '식인종'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또한 식인 풍습의 역사는 원주민들이 탐험가나 선교사들에게 실행했던 주술적 살생 행

위였고, 기독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순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와 주술이 혼용되는 침투와 수용의 역사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개입되면서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그것은 브라질의 문화적 특수성을 규정하는 기본으로 정착된다. 이후 브라질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선언적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브라질 문화에 있어서의 식인풍습은 브라질의 역사적 문맥 위에 설정되어 현실감 있을 뿐 아니라, 대중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예술의 중심에 대한 경배는 사라지고 이제 중심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브라질 내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예술 표현의 동질성과 동시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심어 주었다.

식인풍습 또는 식인주의란 확실히 오스발드 지 앙드라지가 주장한바와 같이 브라질 문화와 문학 속에서 이질적인 것들 사이의 혼합과 융화를 거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선언적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브라질 문학 속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카니발리즘 *Cannibalism*, 즉 사람의 육신을 먹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풍습에서 유래된 식인주의(食人主義)를 도입하여 브라질 역사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브라질 문화의 원천을 찾기 위해 결정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는 또한 여러 인종이 혼합되어 구성된 사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한 문화적 지향성, 나아가 브라질 문화와 문학의 정체성 확보라는 의의를 품고 있음에 틀림없다. 곧 현대사에 있어서 브라질이라는 단순한 지역 범주를 넘어 국제적이며 세계화적인 문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문화적 식인주의가 다양한 주변 문화가 융화된 형태를 지향함으로, 서구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문화 구조가 와해되는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 기준 가치로도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세계의 식인문화", 『월간지구촌』, 2000년 5월호.

이광윤 외, 브라질 문학사, 부산, 부산외국어대 출판부, 1998년,

-----, "현대 브라질에서의 이념적 독립성과 문학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 모더니즘과 향토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제 1권 제 1 호, 국제지역학회, 1997, pp.191-221.

-----, " 브라질의 문화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 - 18세기 문학의 정체성 탐구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1집,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1999, pp.61-89.

Andrade, Mário, "O Movimento Modernista",. In: *Aspectos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Martins, s.d.

Bernd, Zila.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Identity in Brazilian Literature", In: *Latin American Identity and constructions of Difference*, Chanady, Amaryll (ed.), 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Bosi, Alfredo. *História Concis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Cultrix, 1976.

Cândido, António. *Formação da Literatura Brasileira*, Vol. I, São Paulo, Martins, 1964.

Fontana, Dino F., *Literatura Brasileira*, Edições Saraiva, São Paulo, 1968.

Merquior, José Guilherme, *Saudades do carnaval*, Rio de Janeiro, Forense, 1972.

Neves, Luiz Felipe Baêta, "A ideologia da seriedade e o paradoxo do coringa". In *Revista de Cultura Vozes*, 1;35-40, Petrópolis, Vozes, Jan-fev, 1974.

Oswald de Andrade, "Manifesto da Poesia Pau-Brasil", In; *Do Pau-Brasil à Antropofagia e às Utopias*, Obras Completas de Oswald de Andrade, Rio de Janeiro, Civilização Brasileira, 1970,

Poggioli, Renato, *The Theory of Avant-garde*, New York, Icon, 1962.

Silva, Anazildo V. da., *A Formação Épica da Literatura Brasileira*, Rio de Janeiro, Elo, 1987.

Sussekind, Flora. *O Brasil não é longe daqui*, São Paulo, Companhia das Letras, 1990.

Y., Fujiyama, *História da Literatura Brasileira*, São Paulo, Àtica, 1975.